

▶주(周) 대 조공·책봉 관계 성립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연관계를 기초로 정치적 연맹 관계를 맺은 주(周) 왕과 제후 사이에 성립된 관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왕과 제후들 사이에 맺어진 종법적(宗法的) 상하 관계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인(漢) 대 외교 관계의 변화

고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성 백등산 전투(기원전 200)에서 흉노에 패배 → 흉노와 화친 조약 체결(기원전 198)
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강대국으로 성장, 유교적 통치 이념과 화이관(華夷觀, = 화이론) 확립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margin: 5px 0;"> <p>유교에는 원래 ‘하늘이 덕 있는 자를 군주(天子)로 삼아 천하를 다스리게 한다.’ 라는 통치 이념(천명사상)이 있었다. 그런데 한(漢) 대에는 중국이 문명의 중심인 ‘중화(中華)’ 이고, 그 밖의 지역은 ‘오랑캐(夷)’ 로 보는 화이관(중화사상)이 체계화되었다. 이 두 관념이 합쳐지면서 한의 황제는 천명을 받은 천하의 주인이며, 천하는 모두 그의 교화 대상이 된다는 생각이 나타났다. 한이 주변국과 외교 관계를 체결하면서 주(周)가 국내의 제후들에게 하던 조공·책봉의 형식을 요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편, 한이 주변국을 직접 지배하지 않고 책봉한 것은 직접 통치할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국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였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 조공(朝貢)과 책봉(冊封)의 형식 적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인(漢) 대 조공·책봉 외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지배나 실제적인 간섭을 하지 않는 외교의 틀 • 주변국은 한과의 문화적·경제적 교류를 위한 통로로 적극 활용 • 각국의 필요에 따라 형성된 외교 관계로 대내외적 필요에 따라 중단 가능 • 책봉 없이 교역을 위한 조공만 이루어지기도 함
----	--

▶ 위·진 남북조 ~ 수, 당 시기의 국제 질서

국제 질서의 다원화

중국 중심 질서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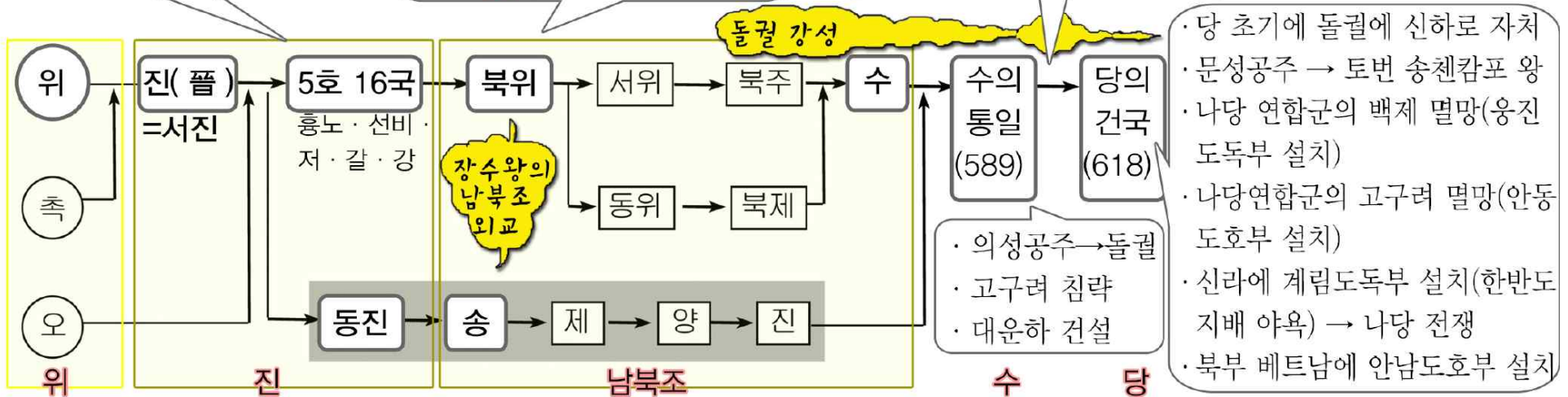
■ 4세기



■ 5세기



■ 6 ~ 7세기



① 한(漢)과 흉노(『천재·금성 교과서』, p.58·70)

이 무렵 한나라 장수 가운데 흉노에 투항하는 자가 많았다. 묵특은 언제나 대군 일대를 넘나들며 약탈하였다. **한나라 고제(고조)는 고민 끝에 유경을 시켜 종실의 공주를 선우의 연지(왕비)로 삼게 하고, 해마다 흉노에게 일정량의 무명, 비단, 술, 쌀 같은 식품을 보내어 형제의 나라가 되기로 약속하였다.**
- 사마천, 『사기』 흉노 열전

② 후한(後漢)과 왜(倭)



57년에 왜의 노국(奴國)이 공물을 가지고 와서 축하를 하였다. 사신은 자기 스스로 대부라 하였다. 노국은 왜국의 남쪽에 있다. 광무제는 인수(印綬)를 주었다.

- 범엽, 『후한서』동이 열전

③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자국 중심 세계관(『천재·미래엔·비상 교과서』, p.56·51·54)

- (동명왕의) 아버지는 천제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 태왕(광개토 대왕)의 은혜는 크고 넓은 하늘에 미치고 위엄은 온 세상에 떨쳐도다. …… **백잔(백제)과 신라는 과거 우리의 속민이었기에 조공을 해 왔다.**
- 광개토 대왕릉비문
- **607년(양제4) 왜(倭) 사신이 가져온 국서에 이르기를,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글을 보내노라. 평안하신가?’** 라고 하였다. 수(隋) 양제가 불쾌히 여겨 “앞으로는 오랑캐의 글 가운데 무례한 것은 보고하지 말라.” 라고 하였다.
- 『수서』 왜국전
- 백제의 동성왕 20년(498) 8월, 탐라에서 공납과 조세를 바치지 않으므로 직접 치려고 무진주에 이르렀다. 탐라에서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 사죄하므로 중지하였다.
- 김부식, 『삼국사기』 백제 본기

④ 고구려와 돌궐(『천재 교과서』, p.58)

영양왕 18년(607) 초, 수의 양제가 카간(계민)의 장막에 행차하였을 때 고구려 사신이 카간의 처소에 있었는데, 카간이 사신을 감히 숨기지 못하고 함께 황제를 알현하였다. …… 황제가 칙명을 내리기를 “…… 돌아가면 너의 왕에게 빨리 와서 조회하라고 전하여라. …… 그렇지 않으면 장차 계민을 거느리고 너희 땅으로 순행할 것이다.”
- 김부식,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5 (가) [____], (나) [____]



그림은 티베트의 여러 세력을 통합한 (가)의 송첸감포가 보낸 사신이 (나)의 황제를 만나는 장면을 그린 『보련도(步辇图)』이다. 이 황제가 신하들과 정치 문제를 논의한 내용이 『정관정요(貞觀政要)』에 잘 나타나 있다.

6 돌궐의 외교(『미래엔 · 비상 교과서』, p.49 · 54)

- 북주는 돌궐과 화친한 뒤 해마다 막대한 물자를 보냈다. 북제도 돌궐이 침략해 올 것을 두려워해 역시 돌궐에 많은 재물을 주었다. 이로 인해 돌궐은 더욱 교만하고 방자해져서, “남쪽에 있는 두 아이가 효성을 바치기만 하면 어찌 물자가 없음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말하였다. - 『주서』
- (돌궐의) 사근(카간)이 딸을 북주의 무제에게 보낼 것을 승낙하자 북제도 (돌궐에) 청혼하였다. 북주의 청혼이 수용되어 그 딸이 무제의 황후가 되었다. 돌궐은 북주와 북제 양국을 조종하여 양쪽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냈다. 사근을 이은 타발 카간은 “나에게는 남방에 두 효성스러운 아들이 있으니 물자가 없어질 걱정이 결코 없다.” 라고 호언하였다. - 『주서』

7 화번공주(『미래엔 교과서』, p.52)

- (수 문제) 개황 17년(597) 돌궐의 돌리 가한이 사신을 보내 공주를 보내 달라고 하였다. 황제는 사신을 태상시에 머무르게 하고 그들에게 육례를 가르친 다음, 종실의 딸인 안의 공주를 돌리 가한에게 시집보냈다. - 『수서』
- (토번의) 농찬은 돌궐, 토욕혼이 모두 (당의) 공주와 혼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폐물을 갖추어 구혼하였지만, 황제가 허락하지 않았다. …… (농찬이) 군대 20만을 동원하여 송주를 침범하고, 사자를 보내 예물을 바친 다음 다시 공주를 맞이하고 싶다고 이르게 하였다. …… (태종은) 종실의 딸인 문성 공주를 보내기로 하였다. - 『신당서』
- 북방의 만이는 예로부터 대대로 중원에 침범하여 난폭한 짓을 해 왔다. 지금 철륵(돌궐계 부족)의 설연타는 완강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 저들에게 화친을 바라게 하여 혼인의 인연을 맺는 것이 좋다. …… 북방 민족의 습속은 여인의 권세가 강하여 무슨 일이든 여인의 주장에 좌우되는 일이 많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내 딸이 자식을 낳는다면 그 아이는 내게 외손자가 된다. 외손자라면 반드시 중국에 대한 침략을 일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경 주변이 30년간 무사할 것이다. - 『정관정요』

Check!

당(唐, 618 ~ 907) 대의 동아시아 국제 관계

돌궐 : 몽골고원에서 흥기 → 북주와 북제가 돌궐의 공주를 왕후로 맞이하려고 경쟁 → 수에서 의성공주 파견 → 수의 이간책으로 약화 (돌궐-고구려 연계 움직임) → 당 초기에 당이 돌궐에 대해 신하로 자처 → 당의 이간책과 공격으로 돌궐 제압(돌궐-발해 연계 움직임) → 위구르에 멸망, 켈 테긴 비(돌궐 문자 사용)

무왕 때 당의 산둥반도 공격(돌궐 - 발해 - 일본)
 문왕 때 3성 6부 수용, 상경성(장안성 모방)으로 천도

쇼토쿠 태자는 아스카 문화(7세기초)와 견수사 파견과 관련 있다.

송첸캄포 왕 때 번영, 당이 토번에 문성공주를 화번공주로 보냄(티베트에 불교 전파)

신라방과 법화원

신라 (나라시대) (헤이안 시대)

당(618~907) 장안(시안)

발해

일본

견당사 파견 → 다이카 개신(646년) → 백제 부흥 운동에 지원군을 파견(백강 전투) → 견당사 파견 → 다이호 율령(701년) → 나라에 당의 장안을 본뜬 헤이조쿄(평성경)을 건설, 나라 시대 개막(710~794년), 당풍 유행 → 헤이안쿄(교토) 건설, 헤이안 시대 개막(794~1185) → 당말에 견당사 폐지와 국풍 문화 발달

신라 사신과 상인들이 규슈의 다자이후를 오가며 신진 문물을 일본에 전래

의상 : 당에 유학하여 신라로 귀국(화엄종 개창)
 원효 : 당에 유학, 불교교리 집대성, 판비량론(중국, 일본에 영향), 아미타신앙으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
 현장 : 인도 순례, <대당서역기>, 가져온 경전을 대안탐에 보관 → 명대 소설 <서유기> 관련
 의정과 다이탕당 : 인도 순례
 감진 : 당의 승려로 일본 도다이사에서 계율을 가르침
 해초 : 신라인으로 당에 유학(밀교), 인도 순례, <왕오천축국전>
 엔닌 : 일본(헤이안시대)에서 당에 유학(장보고의 도움, 산둥반도 법화원에서 기숙), <입당구법순례행기>
 아베노 나카마로 : 안남도호부(북베트남 통치기관)의 도후를 역임
 크엉 쯩 푸와 크엉 쯩 폭 형제 : 당의 고관을 지낸 안남인
 최치원 : 빈공과에 급제하여 당의 관리가 됨(토황소격문)

북부 베트남은 한무제 이래 중국의 지배를 천 년간 받음 → 당은 안남도호부를 설치하여 지배 → 당 멸망 후 5대 10국의 분열기에 응오 왕조가 첫 독립 → 베트남 최초의 장기왕조인 리왕조는 당의 제도를 많이 받아들임

당 초기 영역
 수가 만든 대운하
 당의 최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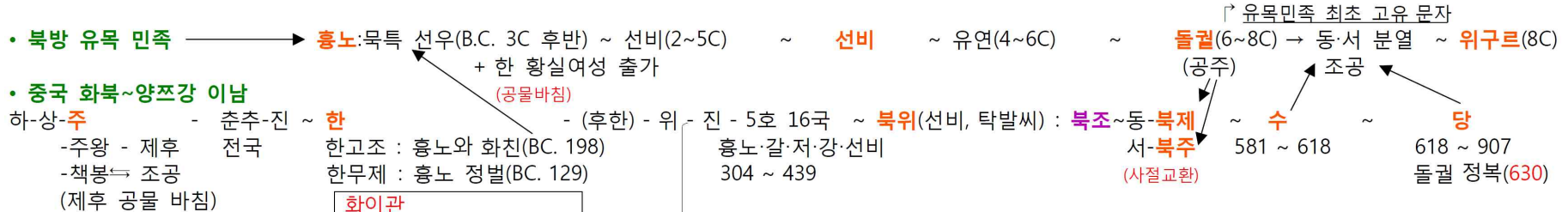
쭉짜, 쭌니 자매의 봉기는 1세기 후한 때

※ 교정(646 → 645)

- 쇼토쿠 태자(574 ~ 622)
- 현장법사(602 ~ 664)
- 견당사(630 ~ 894)
- 송첸캄포(? ~ 649)
↳ 당, 문성공주, 640
- 백강 전투(663)
- 다자이후(규슈, 671 ~)
- 발해 고왕(①, 재위 698 ~ 719)
- 발해 무왕(②, 재위 719 ~ 737)
↳ 산둥 반도 공격(732)
- 발해 문왕(③, 재위 737 ~ 793)
↳ 상경성 천도(755)
↳ 발해 국왕 책봉(762)
- 안남도호부(679 ~ 862)
- 아베노 나카마로(698 ~ 770)
- 최치원(857 ~ ?)

Summary

국제 관계의 다원화(1)



화이관
주변국 조공-책봉 적용
의례적 관계(직접 지배X)

한 - 국제관계
· 군사적 점령, 지배-고조선, 남비엣
· 조공-책봉 모두 : 왜(한위노국왕 금인)
· 조공사절만(교역) : 홍노, 서역 국가

동진 - 남조 : 송 → 제 → 양 → 진

• 만주 · 한반도

고구려 : 남북조 모두 조공책봉(장수왕), 천하의 중심으로 생각, 연호 사용, 백제·신라에 조공 요구
백제 : 남조와 조공책봉, 왜와 밀접, 탐라로부터 조공
신라 : 백제의 중개로 남조와 조공책봉(521), 통일 후 당과 조공책봉 관계
발해 : 주변 말갈 부족에게 복속 강요, 당과 전쟁(무왕) → 당과 친선(문왕), 신라와 교통로 개설 일본과 사신 교환

• 일본 열도

왜 : 후한 광무제가 하사 : 한위(왜)노국왕 금인(57) → 한과 조공-책봉 관계
- 남조와 책봉 관계[송(420 ~ 479)]
- 신라 · 백제와 사절단 교환, 수에 국서 전달(쇼토쿠 태자 → 양제, 607)
- 견수사, 견신라사, 견당사 파견(630 ~ 894)
- 신라와 발해를 조공국으로 간주하여 외교적 마찰

기원전 2 ~ 3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고조 : ____와의 전쟁 패배 → 화번공주와 물자를 주고 화친 한 무제 : 홍노 정벌, 남월과 고조선 정복 : 조공 · 책봉 외교 → 유교적 통치 이념과 ____에 바탕



3 ~ 6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조와 남조 : 주변국과 조공 · 책봉 관계 체결 ↳ 실리를 고려하여 책봉국 선택 : 서로의 사절을 조공 사절로 취급 • 여러 나라와 동시에 조공 · 책봉 관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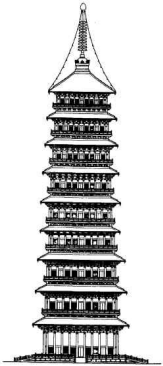


7 ~ 9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618 ~ 907) : 주변국과 조공 · 책봉 관계, ____공주 파견 • 돌궐, 위구르, 토번 → 당과 ____관계만 체결 • 신라 · 발해 : 상호 교류, 당과 조공 · 책봉 • 일본 : 견당사(630 ~ 894) 파견

개념 Check

- ① 한 무제는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에 ()의 형식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 ② 남북조는 서로 사절을 교환하였고, 상대국 사절을 () 사절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 ③ 521년 ()는 백제의 중개로 남조의 양(梁, 502 ~ 557)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 ④ 중원 왕조가 정략상 인접 국가의 왕에게 시집보낸 황제나 황족의 딸을 ()라고 한다.
- ⑤ 일본은 당에 대규모 사절단인 ()를 보내 문물을 수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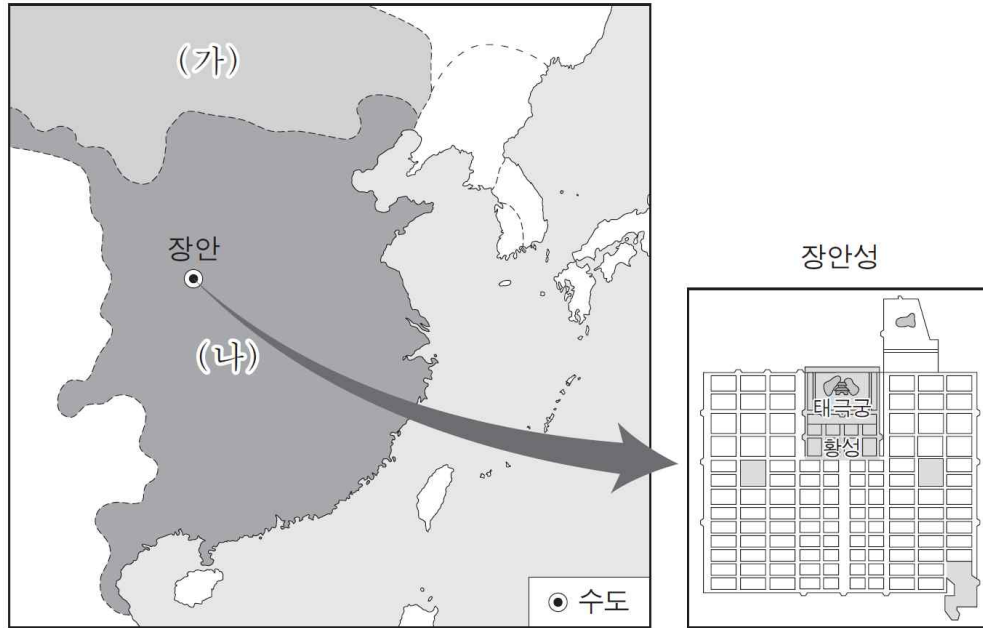
▶(기) 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황실이 휘양에 세운 영녕사의 9층 목탑 상상도이다. 선비족이 세운 이 나라는 화북을 통일한 이후 남제 정벌을 내세워 휘양으로 천도하였다. 은(는) 휘양에 영녕사를 비롯해 1,300여 사찰을 둘 정도로 불교를 중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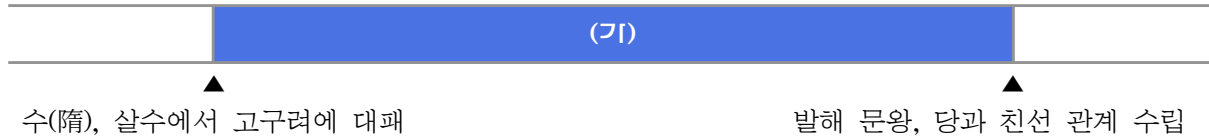
- ① 다이카 개신을 단행하였다.
- ② 고구려와 조공·책봉의 관계를 맺었다.
- ③ 위구르에 화번공주를 보냈다.
- ④ 왕망에 의해 멸망하였다.
- ⑤ 유연을 격파하고 중앙유라시아 일대에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 백제의 부흥 운동을 지원하였다.
- ② (가) - 남북조를 통일하고 대외 확장을 도모하였다.
- ③ (나) - 신라와 책봉·조공 관계를 맺었다.
- ④ (나) - 대운하를 건설하였다.
- ⑤ (나) -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축조하였다

▶(기)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기>
- ㉠ 일본은 건당사를 파견하였다.
 - ㉡ 신라는 당과 동맹을 체결하였다.
 - ㉢ 북제는 돌궐에 조공 사절을 파견하였다.
 - ㉣ 전 왕조는 몽골군의 침입을 격퇴하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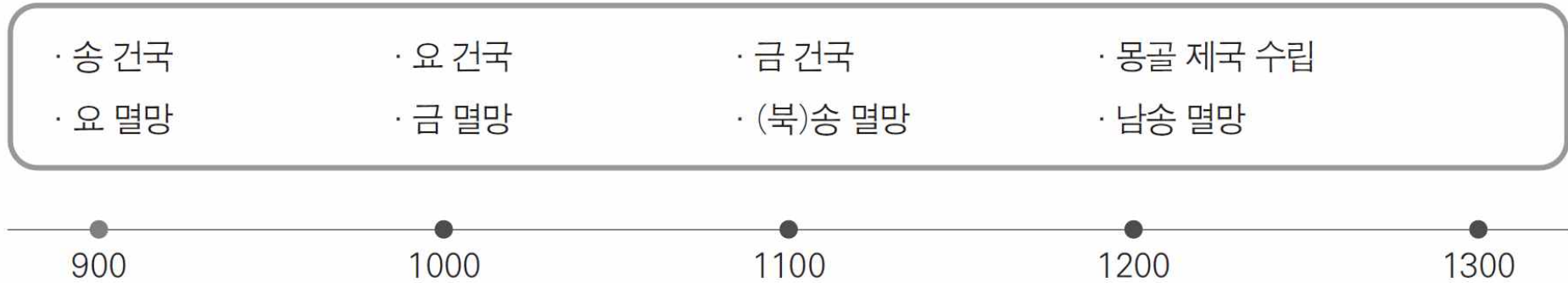
<7 ~ 8세기 동아시아 국제 관계>

▶다음 지료를 모두 활용에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동부여는 옛적에 추모왕의 속민이었는데 중간에 배반하여 조공을 하지 않자, 왕이 친히 군대를 끌고 가 토벌하였다. - 광개토태왕릉비문
- 백제의 동성왕이 탐라에서 공납과 조세를 바치지 않으므로 직접 치려고 무진주에 이르렀다. - 『삼국사기』
- 왜 사신이 가져온 국서에 이르기를,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글을 보내노라. 평안하신가?” 라고 하였다. - 『수서』

- ① 유목민과 농경민의 교류가 활발하였다.
- ② 도래인(渡來人)이 야마토 정권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 ③ 중원 왕조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가 형성되었다.
- ④ 동아시아 각국은 자국 중심의 천하관을 갖고 있었다.
- ⑤ 한반도에서의 인구 이동이 새로운 국가의 수립으로 이어졌다.

▶ 10 ~ 13세기 새로운 왕조의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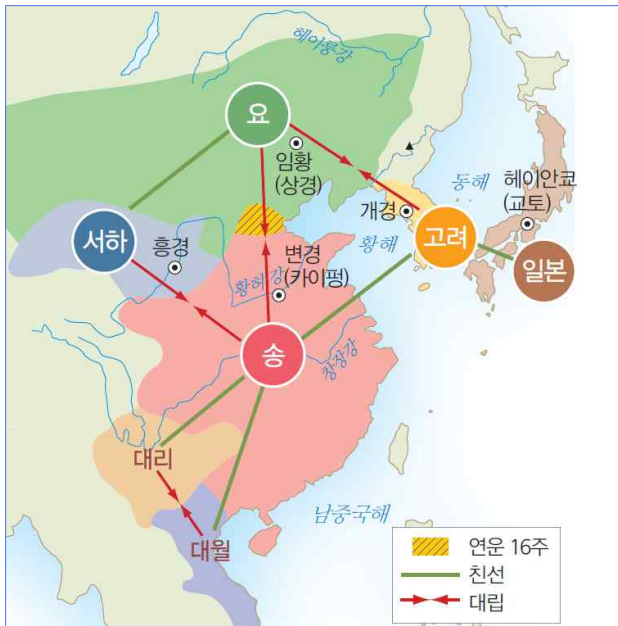


랴오허 강 상류	· 거란, 요(遼) 건국(916)
중원	· 주전충의 후량 건국(907 ~ 923) ⇨ 5대 10국의 분열(절도사, 907 ~ 979) ⇨ 송(宋) 건국[조광윤(㉠, 재위 960 ~ 976), 960 ~ 1279]
중국 서북 지역	· 탕구트 족 조원호의 서하 건국(1032) ⇨ 칭제건원(이원호, 1038) ⇨ 호수천 전투(⇨ 북송, 1041)
한반도	· 후삼국 시대(900 ~ 901 ~) ⇨ 고려 건국(왕건, 918) ⇨ 고려의 후삼국 통일(936)
일본 열도	· 헤이안 시대(794 ~ 1185) ⇨ 미나모토노 요리토모(1147 ~ 1199)의 가마쿠라 막부 수립(1185 ~ 1333), 쇼군 책봉(1192)
북부 베트남 지역	· 응오 왕조(939 ~ 944) ⇨ 리 왕조(1009 ~ 1225) ⇨ 찐 왕조 (1225 ~ 1400)
만주 지역	· 금(金) 건국[여진, 무원황제 아구다, 수도 상경 회령부(上京會寧府, 현 하얼빈), 1115] ⇨ 중도 천도(㉢ 인효황제 완안옹, 베이징, 1153) ⇨ 카이펑 천도(㉣ 해릉왕 완안량, 1157) ⇨ 중도 천도(1161) ⇨ 카이펑 천도(1214)

10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새로운 국가들이 나타나 국제 질서가 재편되었다. **랴오허 강 상류 지역에서는 거란(요), 중원에서는 송(宋), 한반도에서는 고려가 등장하였다.** 북부 베트남 지역에서는 **대월(1054 ~ 1804), 중국 서북 지역에서는 서하(西夏)가 등장하였다.** 12세기에는 **만주 지역에서 여진(금)이 성장하여 세력을 떨쳤다.** 이 국가들은 서로 사절을 교환하고 교역하면서 다원적인 국제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 관계는 안정적이지 않았다. **거란과 송은 자주 군사적으로 대립하였고, 서하도 오랫동안 송과 전쟁을 벌였다. 고려와 거란도 군사적으로 충돌하였다.** 일본은 9세기 말부터 대외 관계에 소극적이 되었다. 오랫동안 교류와 대립을 반복하던 신라와 국교를 단절하고, 견당사(630 ~ 894)의 파견도 중지하였다. **1185년에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가마쿠라에 막부를 세우고,** 1192년 일왕에게 쇼군(정미대장군)의 칭호를 받았다. 가마쿠라 막부 역시 대외 관계에 소극적이었으나, 민간 교역이나 문화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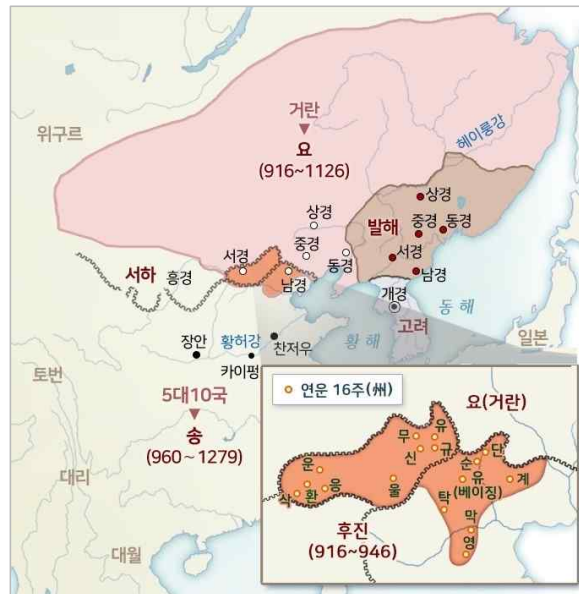
야율아보기의 국가 수립(916) ⇨ 발해 정복(926) ⇨ 동단국 수립(926) ⇨ 연운 16주 차지(~ 석경당, 936) ⇨ 북송과 전연의 맹약 체결(1004) ⇨ 멸망(1125)

거란은 랴오허 강 상류에 살던 유목민으로, 10세기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냈다. 야율아보기(? ~ 926)는 당 말 ~ 5대의 혼란을 피해 거란의 영역으로 망명한 한인(漢人)들의 협력을 얻어 세력을 축적한 후 마침내 거란족 전체를 통일하였다. 이어 칸의 자리에 올라 독립 국가를 세우고, 916년에는 중국을 모방하여 황제라 칭하였다. 그는 동서로 원정에 나서 서남방으로 탕구트 등을 제압하고 세력 범위를 오르도스 지방까지 확장시켰다. 이후 요(遼)는 발해를 멸망시키고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16주를 차지하여 송(宋)을 압박하였으며, 고려를 여러 차례 침공하였다. 통화 22년(1004) 송은 매년 20만 필의 비단과 10만 냥의 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거란과 형제 관계의 맹약을 맺었다. 거란은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고유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고, 이원적 통치 제도를 시행하였다. 거란은 농경민과 유목민을 분리하여 통치하는 남면관제(농경민)·북면관제(유목민)를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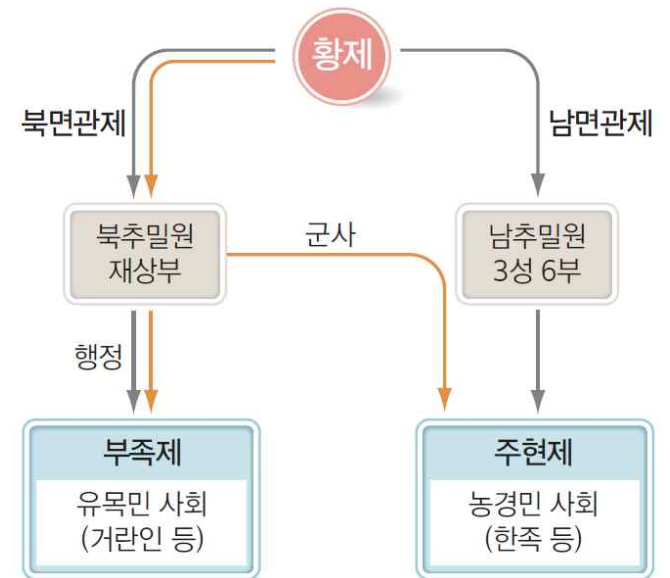


<11세기의 동아시아>

↳ 대리(937 ~ 1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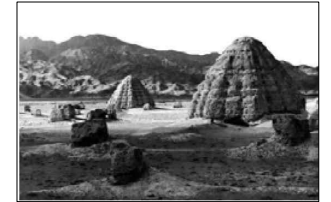
<연운 16주[유주(연주) = 베이징]>



<북면관 · 남면관제>

서하 건국(조원호, 1032) ⇨ 칭제건원(이원호, 1038) ⇨ 북송과 강화 조약(군신 관계, 1044) ⇨ 둔황 장악, 중계 무역으로 번성 ⇨ 칭기즈칸에 멸망(1227)

11세기에 탕구트가 세운 서하(西夏)는 비단길을 장악하고 동서 교역을 통해 발전하였다. 서하는 거란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어 평화를 유지하였지만, 송과는 책봉과 교역을 둘러싼 마찰로 오랫동안 전쟁을 벌였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송은 매년 은과 비단, 차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하와 화약(경력의 화약, 1044)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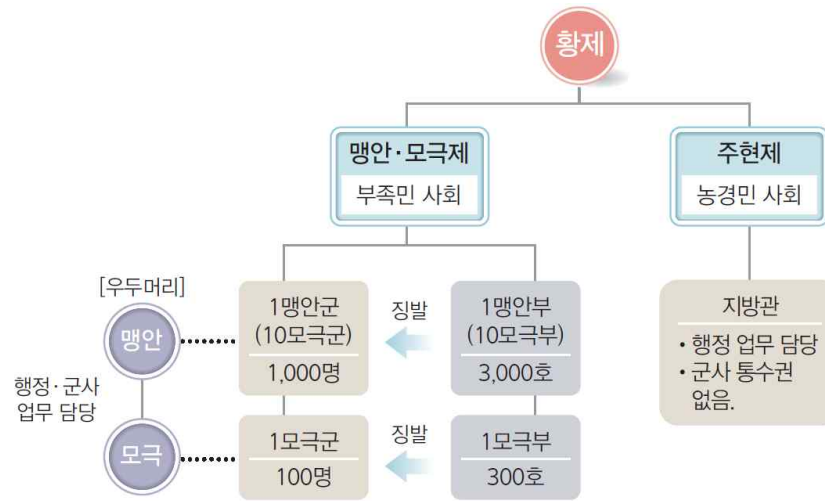
〈서하 왕릉(흥경)〉

금 건국(1115) ⇨ 요 정복(1125) ⇨ 북송 정복(1126) ⇨ 중도 천도(1153) ⇨ 카이펑 천도(1157) ⇨ 중도 천도(1161) ⇨ 카이펑 천도(1214) ⇨ 멸망(1234)

여진은 만주 일대에서 수렵과 농경에 종사하던 민족으로, 완연부의 아구다가 부족을 통합하여 금(金)을 세웠다. 금은 연운 16주의 회복을 노리던 송과 연합하여 거란을 무너뜨리고, 송마저 공격하여 멸망시킨 뒤 화북 지방을 차지하였다. 거란 대신 동아시아의 강자가 된 금은 비단과 은 등 막대한 물자를 받는 조건으로 강남 지방에 세워진 남송과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다(소흥화의, 군신 관계, 1142). 고려와 서하도 금에 조공(군신 관계 체결)하고 교역하였다.



〈12세기의 동아시아〉



〈맹안·모극제〉

금은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고유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고 이원적 통치 체도를 시행하였다. 전통적인 씨족 조직이 자 군사 조직인 맹안·모극제로 여진족을 다스렸고, 한족 등의 농경민을 주현제로 통치하였다.



〈여진 문자〉

북송 건국(카이펑, 960 ~) ⇨ 태조의 **문치주의 정책** ⇨ 태종(②)의 5대 10국 시대 통일(979) ⇨ **진종(③)** 대 전연의 맹약 체결(1004) ⇨ **신종(⑥)** 대 왕안석의 신법(1069) ⇨ 정강의 변[**흠종(⑨), 1126**] ⇨ 남송 건국[**고종(①), 임안(항저우), 1127**] ⇨ 소흥화의[**고종(①), 1142**] ⇨ 남송 멸망[**소제(⑨), 1279**]

북송은 **문치주의를 내세워 절도사 세력을 약화하고 황제권의 강화**에 힘썼다. 그 결과 북방 민족 국가보다 군사력이 열세에 놓이자, 그들과 맹약을 맺고 매년 막대한 물자(세폐)를 제공하여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에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11세기에 왕안석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신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시행을 둘러싸고 당쟁이 격화되면서 오히려 국력이 약해졌다. 1126년 북송이 멸망한 후 1127년 임안(항저우)을 수도로 남송이 세워졌다. **남송은 금과의 전쟁을 꺼려 군신 관계를 맺고 매년 25만 필의 비단과 25만 냥의 은을 바쳤다.** 그러나 여러 차례 대규모 전쟁을 벌이는 등 두 나라의 관계는 안정적이지 않았다.

지문 확인

북방 민족의 성장과 새로운 외교 질서

① 전연의 맹약(『천재·미래엔 교과서』, p.61·55)

- 송의 황제와 요의 황제는 **형제의 교분**을 갖는다.
- 송은 요에 해마다 비단 20만 필, 은 10만 냥을 보낸다.
- 양국의 국경은 현 상태로 한다.

- 『속자치통감장편』 권 58

거란과 강화하고 천하에 사면령을 내렸다. …… 거란에 매년 은 10만 냥, 비단 20만 필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서로 남조와 북조로 칭하기로 하였다.

- 『송사』

② (기) 와 (니)

수도를 포위당한 (기) 이(가) (니) 에 큰아버지와 조카 관계를 서약한 국서(國書)를 보내고 우호 관계를 회복하였다. 얼마 후 (기) 이(가) 다시 군대를 일으켜 (니) 을(를) 공격하였지만 오히려 수도(카이펑)가 함락되고 황제가 사로잡혔다. 이에 일부 황족이 강남으로 옮겨 가 임안(항저우)을 수도로 삼았다.

③ 소흥화의(1142)

지금 (기) 와(과) (니) 은(는) 화의를 맺어 **화이하 강(淮水)과 대산관을 잇는 선으로 국경을 정합니다.** 아울러 (기) 은(는) 대대손손 삼가 **신하의 절의를 지켜** (니) 황제의 탄신일과 정월에 사절을 보내 문안 인사를 여쭙고, 매년 봄에 비단 25만 필과 은 25만 냥을 보내겠습니다.

건국(왕건, 918) ⇨ 후삼국 통일(936) ⇨ 만부교 사건(거란에 대한 강경 정책, 942) ⇨ 과거제 실시(958) ⇨ 북송과 수교(962) ⇨ 거란의 제1차 침입(993)
 ⇨ 강동 6주 획득(서희, 994) ⇨ 강조의 정변(목종 폐위, 1009) ⇨ 거란의 제2차 침입(1010) ⇨ 거란의 제3차 침입(1018) ⇨ 귀주 대첩(강감찬, 1019) ⇨
 천리장성 축조(1033 ~ 1044) ⇨ 별무반 조직(윤관, 1104) ⇨ 동북 9성 축조(1107) ⇨ 금과 군신 관계 체결(1126) ⇨ 몽골의 침입(1231 ~ 1270)

926년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뒤 고려에 친선을 요구하자, 복진 정책을 추진하던 고려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거란은 북송을 공격하기에 앞서 993년 고려를 침공하였다. 고려의 서희는 송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조건으로 거란의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화약을 맺었다. 이때 고려는 청천강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강동 6주 지역을 차지하였다. 거란은 두 차례 더 고려를 침공하였으나, 고려는 이를 물리쳤다. 이후 고려, 송, 거란 사이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으며, 고려는 거란과 조공 관계를 맺고 평화를 유지하였다. 여진이 성장하면서 고려를 위협하자, 윤관(? ~ 1111)은 이들을 물리친 후 동북 지역에 9성을 축조하였다. 이후 여진은 세력을 키워 금(金)을 건국하고 고려에 사대를 요구하였다. 고려 조정에서는 찬반 의견의 대립 끝에, 결국 현실을 인정하고 금에 조공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거란과 금에 대한 조공과는 별도로 여전히 송 및 남송과 해상 교역을 유지하면서 각종 문물을 교류하였다.



〈척경입지도〉

① 994년 서희의 외교 담판(『천재 교과서』, p.61)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에서 일어난 나라이기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소. 만일 영토의 경계로 따진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랴오허 강 중류 부근)이 모두 우리 땅이거늘 어찌 침범이라 하리오. 또 압록강의 안팎도 모두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거주하면서 두 나라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의 옛 땅을 되찾은 다음에 성을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하면 어찌 (그대 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지 않으리오.

- 『고려사』 서희 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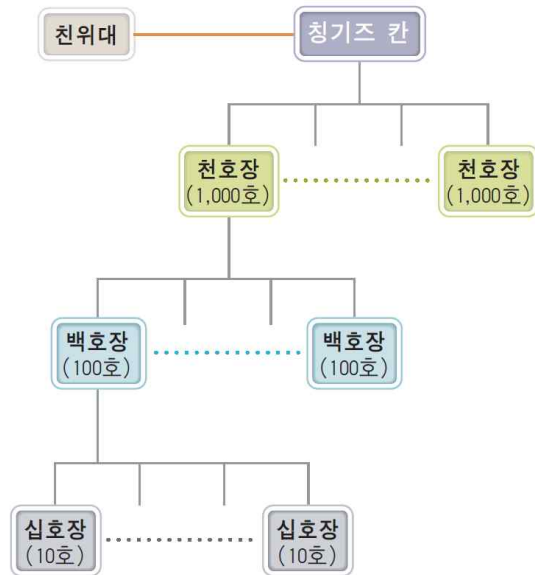
② 고려와 여진의 관계(『금성 교과서』, p.74)

- (1109년) (고려는) “너희가 9성의 반환을 요청했으니 이전에 했던 약속처럼 하늘에 대고 맹세하라.” 라고 하였다. 추장 등은 함주 성문 밖에 제단을 설치하고 하늘에 맹세하여 말하기를, “지금 이후 대대손손까지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해마다 조공을 바칠 것입니다. 이 맹세에 변함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망하여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고 맹세를 마치고 물러갔다.
- (1126년) 백관을 불러 금을 섬길지 말지를 의논하니 모두 아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자겸·척준경 두 사람만 사대를 주장하자 (임금 인종은) 이를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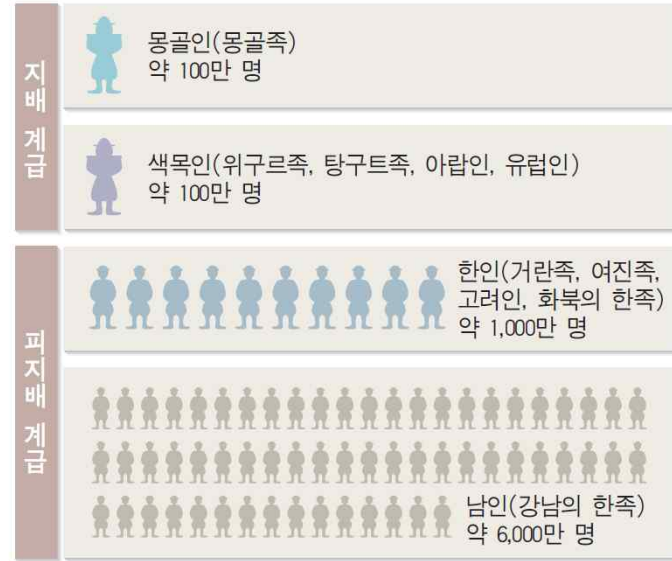
- 『고려사』

테무친의 부족 통합과 몽골 제국 건설(1206) ⇨ 금과 화친 조약 체결(1214) ⇨ 금의 연경 함락(1215) ⇨ 호라즘 정복(1220) ⇨ 서하 정복(1227) ⇨ 금 정복(1234) ⇨ 베트남 제1차 침입(1257) ⇨ 고려 북축(1270) ⇨ 삼별초의 대몽 항전(1270 ~ 1273) ⇨ 국호 ‘대원’ (1271) ⇨ 베이징 천도(1272) ⇨ 여·원 연합의 일본 원정(1274·1281) ⇨ 남송 멸망(1279) ⇨ 베트남 제2차 원정(1284) ⇨ 베트남 제3차 원정(바익당 강 전투, 쩌흥다오, 1287) ⇨ 멸망(1368)

13세기 초 몽골 초원 지대에서 테무친이 몽골계 부족들을 통합하고 쿠빌라이에서 칭기즈 칸으로 추대되었다(1206). 그는 자신의 나라를 예케 몽골 울루스(Ulus), 즉 대원대 몽골국(大元大蒙古國)이라 불렀다. 칭기즈 칸은 천호·백호제를 군사적 기반으로 하여 대외 정복에 나섰다. 먼저 서하를 공격하여 조공을 받고 금을 침공하였다. 이어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왕국을 무너뜨리고 비단길을 장악하였다. 그의 후계자들은 동유럽의 키예프 공국을 점령하여 초원길을 손에 넣음으로써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1231년 오고타이(우구데이) 칸(재위 1229 ~ 1241)은 몽골 사신 저고여 살해 사건(1225)을 계기로 고려를 침공하는 한편, 1234년 금을 멸망시켜 유목민 세계를 통합하였다. 1270년 쿠빌라이 칸(재위 1260 ~ 1294)은 고려를 복속한 후 1279년 남송을 정복하여(중국 전역 지배) 동아시아 대부분을 지배하였다. 또 고려·몽골 연합군을 조직하여 1274년과 1281년 총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을 침공하였다. 그러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실패하였다. 몽골군은 3차례[1257(몽케 칸), 1284·1287(쿠빌라이 칸)]에 걸쳐 대월(쩐 왕조)을 침공하였지만, 쩌흥다오(1228 ~ 1300)의 활약으로 저지되었다. 그 후 대월의 쩐 왕조(1225 ~ 1400)는 전쟁을 피하고자 몽골에 조공 사신을 보냈다. 이어 몽골은 자와를 공격하는 등 군사적 위세에 힘입어 해상 교역로(바닷길)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천호·백호제〉



〈원의 주민 분류〉

몽골 제국은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제국 전역에 ★**역참(驛站)**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의 명령이 제국의 전 지역에 신속하게 전달되었고, 지역의 사정이 중앙으로 보고되었다. 역참 제도는 군사적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나, 몽골 제국이 안정되면서 교역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몽골 제국의 등장으로 ★**초원길이나 비단길**에 동서 교역을 독점하거나 방해하던 국가나 세력이 사라져 **동서 교역이 안정**되었다. 바닷길을 장악한 원은 ★**항저우, 취안저우, 칭다오 등에 시박사를 설치**하여 동아시아 각지로 향해하는 무역선을 관리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일본, 대월, 동남아시아를 잇는 동아시아 교역망이 형성**되었다. 동아시아 교역망은 동남아시아를 거쳐 페르시아 만에 이르는 인도양 교역망과 연결되고, 다시 지중해 교역망으로 연결되었다. 교역이 발달하자 단일 화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몽골 제국은 초기부터 ★**교초(交鈔)를 발행**하였다. 특히, 쿠빌라이 칸 때 발행한 교초(**중통원보**)는 금이나 은과 교환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화폐였으므로, **몽골 제국 전역에서 널리 유통**되었다. 동서 교역의 영향으로 문물의 교류도 활발해졌다. 서아시아의 **천문학, 역법, 지도학 등이 원에 소개**되었고, 그 영향으로 **수시력(授時曆, 광수경, 1281)이 만들어졌다**. 이슬람의 과학은 원을 거쳐 고려에 전해졌고, **조선에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1402)와 『칠정산』(1442) 등을 제작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마르코 폴로(1274)와 이븐 바투타(1344) 등이 입국해 활동**하기도 하였다.



〈몽골 제국의 주요 교통로〉



〈교초〉



〈파이자(패자)〉

▶ 14세기 이후 국제 관계의 변화

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적인 재정 부족, 자연재해 등으로 원의 약화 → 백련교도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반란 → 흥건적의 난(1351 ~) • 명(明) 건국과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건적 출신의 주원장이 각지의 반란 세력을 통합하고 대도(大都) 점령 → 난징에 도읍하여 건국(1368) ↳ 흥무제(㉠, 재위 1368 ~ 1398) → 황제 권력 강화, 몽골 세력 축출, 한족 문화 회복 노력, 향촌 질서 정비(이갑제) ✓ 영락제(㉡, 재위 1402 ~ 1424) : 정난의 변, 자금성 건설과 베이징 천도(1421), 몽골 공격, 베트남 북부 점령(1407) : 정화(환관, 무슬림)의 항해 추진(1405 ~ 1433) → 조공·책봉 체제의 확대, 명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 질서 수립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민왕(㉢, 재위 1351 ~ 1374)의 반원 자주화 정책 ✓ 몽골의 풍습 금지, 기철 등 친원 세력 축출, 쌍성총관부 지역 무력 수복(1356) ✓ 권문세족의 반발과 왜구의 침입 등으로 실패 → 신진사대부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 정도전 등 혁명과 신진사대부와 이성계 등의 신흥 무인 세력의 연합, 위화도 회군(1388) ⇨ 건국(1392) ⇨ 한양 천도(1394) ✓ 초기 요동 정벌 추진(1396)으로 명과 갈등 ⇨ 1401년 태종(㉣, 재위 1400 ~ 1418) 때 명과 조공·책봉 관계(事大) 형성
일본 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다이코 일왕 슌 아시카가 다카우지 ⇨ 가마쿠라 막부 붕괴(1333) ⇨ 무로마치 막부 성립(아시카가 다카우지, 교토, 1336) ② 교토(고곤 → 고묘 → 고코곤 → 고엔유 일왕) ⇨ 요시노(고다이코 → 고무라카미 → 조케이 일왕), 남북조의 분열(1336 ~ 1392) ③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재위 1368 ~ 1394) ↳ 남북조 통일(1392), 일본 열도에 대한 지배권 확립 → 일본 국왕 책봉(명, 1401) → 명과 감합 무역 시작(1404 ~ 1547)
북부 베트남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 왕조(1400 ~ 1407) ⇨ 후 레 왕조(1428 ~ 1788)

명(1368)과 조선(1392)이 건국되고, 무로마치 막부가 수립됨(1336)으로써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었다. **명은** 각지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요구하였고, 조선·일본·대월·류큐 등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조공·책봉 관계가 성립**되었다. 명은 조공 이외의 민간 교역을 철저히 통제하였으므로, 몽골 제국 시기보다 동서 교류와 동아시아 지역 내의 교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사대교린을 추구한 조선은 조공·책봉 관계를 통해 명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일본·여진·류큐(1429 ~ 1879) 등과 교류하였다. **일본은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명으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되었고, 이를 계기로 조공 질서에 참여하였다.** 명의 침공을 물리친 대월에서는 **레 왕조(1428 ~ 1788)**가 명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명의 문물을 도입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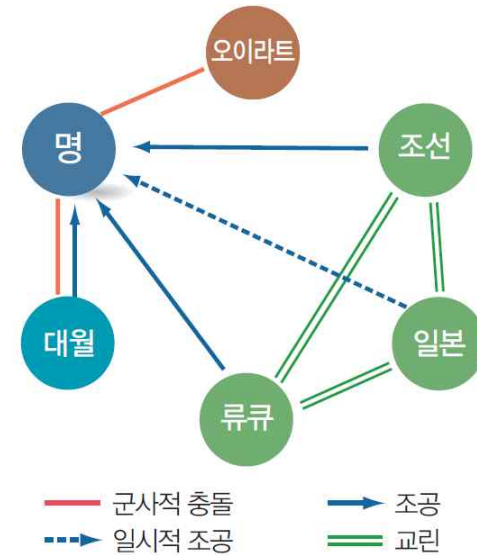
Check!

명(明)의 조공 질서 확립



<정화의 항해로, 명(明) 중심의 조공 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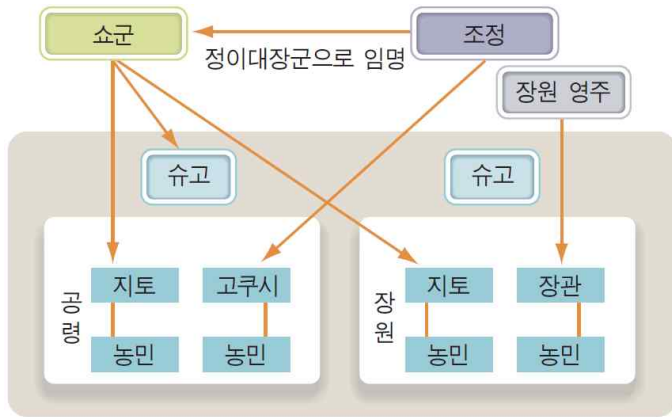
정화(1371 ~ 1433)는 영락제의 명에 따라 1405년 첫 항해에 나선 뒤 1433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항해에 나섰다.** 그의 함대는 동남아시아(말라카), 인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동해안의 말린디까지 항해하였고, **여러 나라를 조공·책봉 체제로 끌어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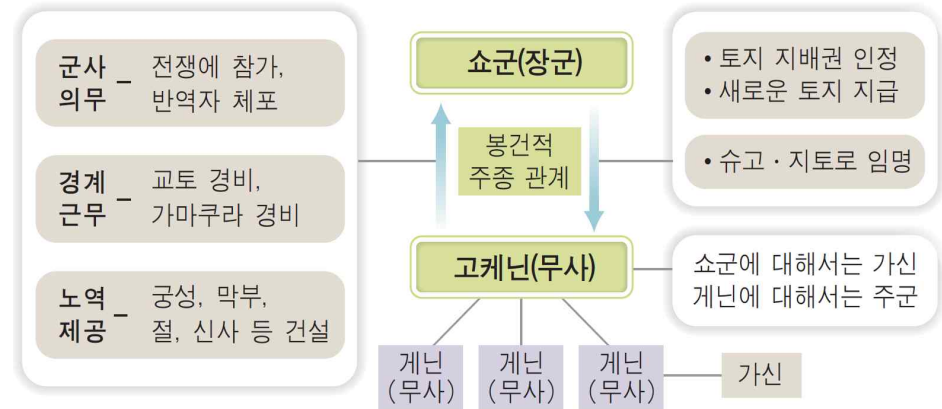
▣ 명과 조선의 사대(事大) 관계(『금성 교과서』, p.81)

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 행차하여 잔치를 베풀고 명나라 사신(진가유)을 맞이하였다. 임금이 명나라 사신에게 말하기를 “후문의 야인은 대대로 변방의 걱정이 되었으므로 조종으로부터 칙지를 받들어 위로하고 무마하여 변방의 백성을 편안케 했던 것뿐이고, 우리가 불러들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다. 한참 동안 서서 이야기하다가 임금이 돌아오려고 하니, 명나라 사신이 전송해서 중문까지 이르렀다. 임금이 또 지극한 정성으로 사대하겠다는 뜻을 이야기하니, 진가유가 말하기를, “정성이란 것은 대국도 섬길 수가 있고, 소국도 섬길 수가 있으며, 이웃 나라와 교제할 수도 있으니, 전하의 말이 정말 옳습니다.” 라고 하였다.

- 『세조실록』



〈막부와 조정의 이원적 지배〉



〈쇼군과 고케닌의 관계〉



일본 역사의 흐름	
592~709	아스카 시대
710~793	나라 시대
794~1185	헤이안 시대
1192~1333	가마쿠라 막부 시대
1336~1392	남북조 시대
1338~1573	무로마치 막부 시대
1467~1477	오닌의 난
1467~1590	센고쿠 시대
1603~1867	에도 막부 시대



〈여·원 연합군의 일본 원정〉

신석기	청동기	반랑국	어우락 왕국	남월국	40 ~ 43	응오 왕조	리 왕조	쩐 왕조
풍응우옌 문화	동썌 문화	흥 브엉 건국 동썌 문화 기반	안 즈엉브엉 남월국에 멸망	기원전 203 ↳ 짜에우다 건국 기원전 111년 멸망 ↳ 한9군 설치	쯩 자매의 봉기 후한 광무제의 진압	939년 성립 ↳ 5대 10국의 분열로 독립	1009 ~ 1225 과거제 실시 국호 '대월'	대몽 항쟁 승리 : 쩐흥다오 쯔놈 문자 『대월사기』

응오 왕조(939 ~ 944) ⇨ 딘 왕조(968 ~ 980) ⇨ 전 레 왕조(980 ~ 1009) ⇨ 리 왕조 성립(1009 ~ 1225) ⇨ 문묘 건설(1070) ⇨ 과거제 도입(1075) ⇨ 국자감 설치(1076) ⇨ 쩐 왕조 성립(1225) ⇨ 몽골의 제1차 침입(1257) ⇨ 『대월사기』 편찬(1272) ⇨ 몽골의 제2차 침입(1284) ⇨ 몽골의 제3차 침입(바익당강 전투, 1287) ⇨ 쩐 왕조 멸망(1400) ⇨ 호 왕조 수립(1400) ⇨ 호 왕조의 멸망과 명의 지배(1407 ~ 1427) ⇨ 후 레 왕조 성립(1428 ~ 1788)

▣ 몽골의 침략과 베트남의 저항(『천제고고서』, p.62)

쩐흥다오(1228 ~ 1300)는 쩐 왕조(1225 ~ 1400)의 장군으로, 3차례에 걸친 몽골군의 침략을 물리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몽골의 제1차 침입(몽케 칸, 1257) 때 대월의 북방을 굳게 지켰다. **몽골의 제2차 침입(쿠빌라이 칸, 1284) 때는 수도 탕롱(지금의 하노이)이 함락되고 황제(인종, 재위 1278 ~ 1293)까지 항복을 고려하자, 50만 대군에 맞서 최후까지 저항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때 『격장사(檄將士)』라는 유명한 글로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해 몽골군을 대파하고 탕롱을 탈환하였다.** 몽골군의 제3차 침입 때(1287)는 소수의 병력이었음에도 탁월한 전략으로 몽골군에 대승을 거두었다. 오늘날 베트남 사람들은 쩐흥다오를 흥다오 대왕으로 신격화하여 베트남의 독립을 지킨 영웅으로 존경하고 있다.



〈쩐흥다오 동상(호찌민)〉

Summary

국제 관계의 다원화(2)

• 중국

당 ~ 5대 10국 ~ 절도사 난립 후량 ~ (907 ~ 979)	요(거란) ~ 916 ~ 1125 야율아보기 발해 멸망(926) 연운 16주(936) 북면관·남면관 전연의 맹약 ↳ 세폐, 1004 거란 문자 고려 침입	북송(한족) ~ 960 ~ 1127 조광윤 문치주의 : 절도사 억제 황제권 강화 : 과거 → 전시 수도 카이펑 (= 개봉, 변경)	서하(탕구트족) ~ 조원호, 1032 ~ 1227 북송, 은·비단(세폐) 서하 문자, 중계 무역 거란에 조공	금(여진) ~ 아구다, 1115 ~ 1234 송과 연합 → 요 멸망 수도 임안 정강의 변(흫중, 1126) (=항저우) 고려·서하, 남송 굴복(군신관계) 여진 문자 맹안모극제, 군현제 (1맹안=10모극)	남송(한족) ~ 1127 ~ 1279 송과 연합 → 요 멸망 수도 임안 정강의 변(흫중, 1126) (=항저우) 고려·서하, 남송 굴복(군신관계) 여진 문자 맹안모극제, 군현제 (1맹안=10모극)	몽골 제국(원) ~ 1206 ~ 1368 (백련교의 난) 칭기즈칸 천호·백호제 호라즘 정복(서역) 서하·금·대리 정복 비단길 장악 원[쿠빌라이칸(재위 1260 ~ 1294), 1271] 대도(베이징) 천도(1272) 일본 원정(1274, 1281) 남송 정복(1279) 대월 침략(1284, 1287) 행성(행중서성) 설치 다루가치 파견 몽골인 지상주의 역참(통치 → 동서교역) 시박사(무역선 관리) → 항저우, 취안저우 마르코 폴로 입국(1274) 중통원보 등 교초 발행 파스파 문자, 티베트 불교(외래 종교 개방적) * 동서 교류(인쇄술, 나침반 등 전파, 서아시아 수학 등 소개) 교초 남발, 왕실 사치, 과중한 세금 → 쇠퇴, 순제 북방 도피	명(한족) ~ 1368 ~ 1644 홍무제(주원장, 재위 1368 ~ 1398) ① 6부 → 황제 직속 ② 과거제 정비, 성리학 관학화 ③ 이갑제(지방) : 조세, 치안 ↳ 10호 = 1갑, 110호 = 1리 영락제(재위 1402 ~ 1424) ① 몽골 고원 원정 ② 베트남 일시 점령 ③ 조공 책봉(조선, 일본, 류큐) ④ 정화의 항해(1405 ~ 1433) ⑤ 베이징(자금성) 천도
--------------------------------------	---	---	---	---	---	---	--

• 한반도

고려 거란 ↔ 서희(강동 6주, 994), 강감찬(귀주대첩, 1019), 천리장성(1033 ~ 1044) 여진 정벌(윤관, 별무반, 1104) → 동북9성(1107) → 금의 군신관계 수용(이자겸, 1125) 남송과 우호 몽골에 항전(강화 천도, 1232) → 항복(1270) → 부마국(1274 ~), 민족 의식 강화[「삼국유사」(1281)], 공민왕(1351 ~ 1374)의 반원 정책(영토 수복, 몽골 풍습 금지, 관제 복구 등)	조선 급진파 신진사대부(정도전) + 신흥 무인 세력(이성계) → 건국(1392) 외교 : 명(조공책봉, 1401), 여진(화전양면), 일본[쓰시마 정벌(1419), 3포 개항(1426)]
--	--

• 일본

가마쿠라 막부 ~ 무로마치 막부 1185 ~ 1333 ~ 1336 ~ 1573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여원 연합군 2차례 원정 : 태풍 → 신국의식 강화	* 류큐(1429 ~ 1879) : 중계무역으로 번성(~ 1567) →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연결 아시카가 다카우지[~ 남북조(1336 ~ 1392)] 교토(북조, 고곤) - 요시노(남조, 고다이고) 각각 일왕의 조정, 60여 년간 내란 아시카가 요시미쓰[남북조의 내란 통일(1392) → 명으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1401) → 감합 무역 실시(1404)]
---	--

개념 Check

- ① 5대 10국의 분열 시대는 조광윤이 세운 ()에 의해 수습되었다.
- ② 918년 한반도에서는 ()가 건국되었고,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 ③ 1004년 송(宋)은 ()과 전연의 맹약을 통해 형제 관계를 체결하고 은과 비단을 바쳤다.
- ④ 거란은 이원적 통치 정책을 실시하여 유목민과 농경민을 ()로 나누어 다스렸다.
- ⑤ 1032년 중국의 서쪽 지역에서 탕구트 족이 ()를 건국하였다.
- ⑥ 1115년 아구다(阿骨打)는 여진을 통일하고 ()을 건국하였다.
- ⑦ 거란, 탕구트, 여진 등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독자적인 ()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 ⑧ 송은 건국 이후 ()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황제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 ⑨ ()의 개혁이 실패한 이후 국력이 쇠퇴한 북송은 금에 의해 멸망하였다.
- ⑩ 1126년 금의 공격으로 북송의 수도 ()이 함락되었으며, 이후 남송이 수립되었다.
- ⑪ 원 대에 항저우, 취안저우, 칭다오 등지에 ()가 추가로 설치되어 해상 교역을 관장하였다.
- ⑫ 고려는 ()를 멸망시킨 요에 대해 적대 정책을 펼쳐 요의 침입을 받았다.
- ⑬ 요의 제1차 침입 때 고려의 서회는 외교 담판으로 ()를 확보하였다.
- ⑭ 고려는 1104년 윤관의 건의로 ()을 편성하여 여진을 정벌하였다.
- ⑮ 몽골에 침입에 대응하여 고려는 1232년 ()로 천도하였다.
- ⑯ 고려에서는 몽골과의 강화에 반대하여 ()가 끝까지 항전하였다.
- ⑰ 1206년 테무친은 쿠릴타이에서 ()으로 추대되었다.
- ⑱ 원은 지방에 ()를 파견하여 다스렸고, 고려에도 이들을 파견하여 내정에 간섭하였다.
- ⑲ 칸으로 즉위한 쿠빌라이는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로 옮겼고, 국호를 대원으로 바꾸었다.
- ⑳ 몽골은 주요 간선 도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을 설치하였다.
- ㉑ 일본에서는 몽골·고려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낸 후 자국이 신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 확산되었다.
- ㉒ 1192년 ()가 일왕에게 쇼군(정대장군)의 칭호를 받았다.
- ㉓ 가마쿠라 막부는 지방에 토지 관리와 조세 징수를 위해 ()를 파견하였다.
- ㉔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새로운 일왕을 세우자 고다이로 일왕이 피신하여 세력을 유지하면서 ()의 내란이 발생하였다.
- ㉕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쓰는 1401년 명 황제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 받았고, 1404년부터 명과 () 무역을 전개하였다.

▶ 밑줄 친 '나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서쪽의 그 나라가 걸어온 역사를 개관해 보면 비록 송으로부터 책봉을 받았고, 송도 또한 세페라 칭하면서 하사해 주고 서조(誓詔)로 답해 주었지만, 모두 일시적으로 나온 말일 뿐이며, 그 마음은 신하로 순종하려는 진실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원호가 머리를 묶고 군사를 일으킨 지 거의 20년 동안 송은 그의 강함을 꺾을 수 없었다. - "송사" -

- <보기>
- ㉠ 맹안·모극제와 주현제를 실시하였다.
 - ㉡ 여진(금)과 군신 관계를 체결하였다.
 - ㉢ 세 차례에 걸쳐 베트남을 침공하였다.
 - ㉣ 거란과 조공·책봉의 관계를 맺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기) 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변경(카이펑)의 궁궐이 완성되자, (기)의 해릉은 연경에서 옮겨 와 머물렀다. 해릉은 여러 달 동안 정사는 돌보지 않고 남벌을 준비하면서 여러 장수들에게 군무를 나누어 맡겼다. 장호가 아뢰기를 “장수들이 모두 신진의 젊은 사람이니 국사를 그르칠까 염려됩니다. 마땅히 나이 든 사람 가운데 군무에 능숙한 자를 구하여 천부장과 모극으로 삼아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해릉은 장호의 말을 듣지 않고 친히 군대를 통솔하여 변경을 출발하였다.

- ① 누르하치가 건국하였다.
- ② 남송과 군신 관계를 맺었다.
- ③ 거란(요)과 전연의 맹약을 맺었다.
- ④ 이자성의 군대에 의해 멸망하였다.
- ⑤ 호라즘을 정복하고 비단길을 장악하였다.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몽골군이 배에서 내려 말을 타고 깃발을 높이 들고 쳐들어왔다. …… 일본군이 전열을 가다듬어 쳐들어가면, 그 가운데를 뒤로 물리고 양쪽 끝에서 포위해 남김없이 도륙하였다.

(나) 일본의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황제 폐하께 국서를 올립니다. …… 예로부터 전해오는 법규에 따라 상인 고이즈미를 승려 소아와 함께 동행하게 하고 친교를 맺고자 토산물을 헌상합니다.

- ① 주원장이 명을 건국하였다.
- ② 고려가 몽골과 강화를 맺었다.
- ③ 변경(카이펑)이 함락되어 북송이 멸망하였다.
- ④ 일본이 견당사를 파견해 선진 문물을 수용하였다.
- 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정이대장군의 직함을 받았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황제가 말하기를 “조선은 수도로부터 압록강에 이르기까지의 요충지에 비축하는 군량이 역마다 1, 2만 석 또는 7, 8만 석, 10여 만 석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라오둥은 군량이 모자라 군사들이 굶주리고 있다. 만일 조선이 20만 군을 내어 쳐들어오면 우리 군대가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 정도전이 남은과 깊이 결탁하여 상서하기를, “사졸(士卒)이 이미 훈련되었고 군량이 이미 갖추어졌으니, 동명왕의 옛 강토를 회복할 만합니다.” 라고 하였다.

- ① 지배층이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
- ② 5대 10국의 혼란 시대가 수습되었다.
- ③ 유목 민족이 처음으로 중국 전역을 지배하였다.
- ④ 몽골 세력을 몰아내고 한족 문화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
- ⑤ 무로마치 막부가 송의 동전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유통시켰다.